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1차 보고의무 (보고기한: 2024. 1. 31.)

1. 들어가며

2023. 8.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이 법률로 최종 채택되어, 2023. 1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CBAM은 EU 역외의 상품의 EU 시장 진입 시, EU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Emissions Trading System, 이하 "ETS") 상의 적정 탄소가격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상품이 EU 시장에 진입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따라서 EU 역외 상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는 탄소배출과 관련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이 EU 시장으로 수입되는 경우 EU ETS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생산되었더라면 부담 했어야 했을 탄소 배출비용을 해당 상품의 EU 세관 통과시 납부하여야만 해당 상품을 EU 시장 내에서 유통할 수 있습니다.

2026. 1. 예정된 본격 시행시점까지 EU는 약 2년의 전환기간을 설정하고 CBAM 적용대상 산업(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을 취급하는 자에게 총 4차에 걸쳐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EU CBAM 1차 보고기한인 1. 31. 까지 EU 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일정 및 그 주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EU 시장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준비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간략히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2. EU CBAM 제1차 보고의무 (기한: 1. 31.)

(1) 보고의무자

EU 역내 시장으로 역외 상품을 수입하는 보고의무자는 2023년 4분기 수입분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2024. 1. 31.까지 EU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상품의 수출업자는 보고의무자에 의한 보고의무 이행을 위하여 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Related Areas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ESG
관세 및 통상
국제거래
수입규제
탈탄소 산업

Contact

백윤재 변호사

02-528-5473

yjbaek@yulchon.com

안정혜 변호사

02-528-5306

jhahn@yulchon.com

박주현 변호사

02-528-5301

joohyunpark@yulchon.com

최보원 외국변호사

02-528-6448

bwchoi@yulchon.com

최호연 변호사

02-528-6402

hoyeanchoi@yulchon.com

"보고의무자(reporting declarant)"란 수입품의 내재 탄소배출량(embedded emissions)¹⁾을 보고할 책임을 갖는 주체를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보고의무자는 '수입업자'이지만, 실제로 누가 세관 신고를 하는지에 따라 보고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물품의 수입 과정에 여러 행위자가 관여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물품의 내재배출량 보고는 정확히 하나의 보고의무자가 담당해야 하고, 보고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EU 관세법(Unions Customs Code, "UCC")의 규정에 따르면, 보고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본인의 명의 및 계산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통관신고서를 제출하는 수입업자;
- ② UCC 제 182조 1항에 언급된 통관신고 제출 권한을 가진 수입업자로서 상품의 수입을 신고하는 자; 또는
- ③ 간접 통관 대리인(수입업자가 EU 역외에 설립된 경우이거나 간접 통관 대리인이 CBAM 규정 제32조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로 동의한 경우).

(2) 보고내용

보고의무자는 분기별로 작성한 'CBAM 보고서'를 각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CBAM 당국(CBAM Transitional Registry)**을 통해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의무자가 CBAM 보고서를 통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²⁾

- **수입상품 정보**
 - 수입상품의 수량(전기: Mwh, 기타상품: 톤 / 원산지 국가에서 상품 생산하는 설비 별로 명시)
 - 수입상품의 CN코드(HS코드와 EU의 세부 코드로 구성된 EU의 8자리 코드체계)
- **내재배출량 정보**
 - 상품의 원산국 정보
 - 생산장소 및 생산회사 관련 정보
 - 생산경로, 상품생산에 사용된 기술 및 내재배출량 산정을 위한 매개변수 정보
 - 상품의 특정 직접배출량(specific imbedded direct emissions)
 - 철 및 철강 제품의 경우 특정 원재료가 생산된 제철소 식별번호

1) 내재 탄소배출량이란 CBAM 이행규칙 부속서III에 적시된 방식에 따라 계산된,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직접적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2) CBAM 이행규칙 제3조, 제7조.

- **간접배출량 정보**

- 전력소비량
- 실제배출량 또는 기본값 보고 여부
- 소비되는 전기의 배출계수
- 상품의 특정 간접배출량(specific imbedded indirect emissions)

- **원산지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 정보**

- 상품의 CN 코드
- 원산지국의 탄소부담금 유형 및 탄소가격제도에 대한 설명
- 기지불한 탄소가격 금액(보고서 제출 연도의 직전 평균 환율(유럽중앙은행 시세)을 기준으로 유로로 환산)
- 탄소가격 인하시키는 국가의 모든 보조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
- 관련 법률 및 사본
- 보상받은 직간접 내재배출량 등의 정보

내재배출량의 산정 방법은 CBAM 이행규칙 부속서 III에 규정되어 있는데, 2024. 7. 31.까지는 EU 집행위 제공 기본값 혹은 동 부속서III에 명시된 기본값을 내재배출량 수치로 사용할 수 있고, 2024. 12. 31.까지는 CBAM 이행규칙에 명시된 방식이 아닌 제3국에서 시행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배출량 수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일정

보고자는 매 분기별 CBAM 보고서를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CBAM 등록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4분기 수입에 대한 CBAM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2024. 1. 31.이 됩니다.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기 이후 2개월 내에 수입업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는데, 전환기간 개시 후 최초 2회의 보고서(2023년 4분기 보고서, 2024년 1분기 보고서)에 대하여는 3차 보고서 제출기한(2024. 7. 31.)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³⁾

CBAM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서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함에도 관할당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미보고된 내재배출량 1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⁴⁾

3) CBAM 이행규칙 제8조.

4) CBAM규정(2023/956) 제32조.

3. 향후 전망

對EU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우리 기업은 EU 시장으로의 상품 수출 시 현재 요구되는 CBAM 보고의무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CBAM 전환기간 종료 후 탄소 비용이 부과될 경우를 대비하여 EU가 요구하는 내재배출량 및 간접배출량 산정 방식과 산정값에 관하여 선제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현행 CBAM 규정에 의하면 전환기간 중 보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이점 유념해야 합니다.

EU 역내 수입업자들은 탄소배출량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이며, 이러한 역량을 갖춘 생산업자들이 EU 시장 진출에 있어서 경쟁업체 대비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즉, EU 시장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CBAM이 예정하는 보고 일정을 준수하면서 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은 CBAM 이행의무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폭넓은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쟁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율촌의 국제통상팀은 탄소배출, 공급망, 청정에너지, 전기차 보조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정부 부처 및 개별 기업들에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더욱이 이번 CBAM은 EU 역외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수많은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통상 규범 및 ESG 이슈에 정통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